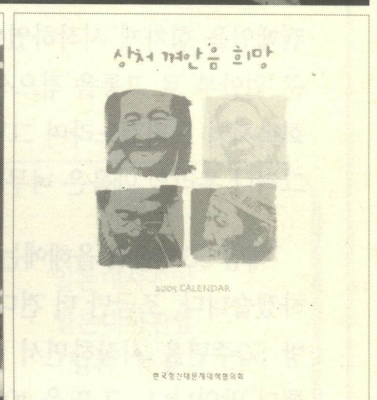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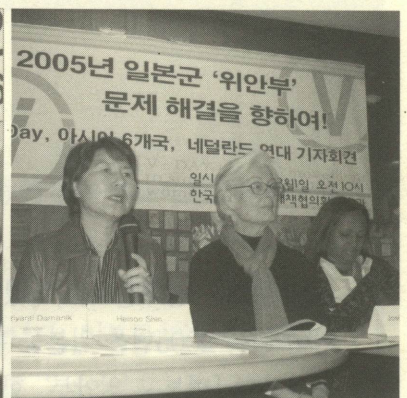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소식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Newsletter



Contents

- 여는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 정의를!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 특 집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을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 발족
- 우리 활동
- 미소가 묻어나는 이야기
- 행복한 노후 만들기 행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소식
- 쉼터 소식
- 지역 소식
- 할머니 소식
- 이모저모



34호

발행일 | 2005. 2. 28
 발행인 | 신혜수, 윤순녀, 정숙자
 편집인 | 윤미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층 (우 120-012)
 전화 | 02-365-4016
 팩스 | 02-365-4017
 홈페이지 | www.womenandwar.net
 이메일 | wnw@womenandwar.net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 정의를!” 2005년, 글로벌캠페인을 시작하면서..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 |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60주년이 되는 2005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해로 작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 정의를!」글로벌 캠페인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기필코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겪으신 할머니들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 드리겠노라며 그렇게 희망으로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해방 50주년인 올해에는 할머니들의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힘냅시다.” 10년 전 해방 50주년을 시작하면서 수요시위에서 할머니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10년째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의 운동이 시작된 후 9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2005년 새해 들어서도 1월 한 달 동안 김상희, 김분선, 박복순 세 분 할머니가, 2월에 들어서자마자 또 이영순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셨고, 살아계신 124명 할머니들도 올해는 너무나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협 사무처 활동가들은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할머니 병문안 다니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할머니들의 이 한을,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을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사업, 100만인 국제연대서명운동, ILO총회 의제 채택운동, 세계동시다발 수요집회,

할머니들 지원사업 등 열심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를 향해,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의 이 투지를, 정의실현을 갈급해 하는 우리 할머니들의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건립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일본군성노예 제도의 범죄성과 그 범죄에 희생된 여성들의 역사를 박물관에 기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우리 후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해 갈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을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건립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그 시작에 황금주 할머니가(86세) 평생 모진 인생 살아내면서도 술한잔, 담배한대 먹지 않고 모아온 1억원을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내놓아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황금주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박물관이 건립되어 우리는 죽어도 우리들이 당한 그 역사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 자식이 있어? 죽으면 그냥 아무 것도 남지 않고 죽는건데, 그런데 이렇게 기념관을 지어서 우리를 기억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너무 기쁠요. 우리가 죽기 전에 박물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할머니의 이 소중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